



자기상품 만들어 승부

개발 통해 시장확대 배가



◀송철중
(주)신원산업 대표이사

중소기업이 자기상품을 만들어 내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는 험한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주문 물량에 의존하는 하청업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발은 물론 자사 브랜드를 갖는다는 것은 보통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최근 편리한 원터치 파우치 용기 일명 땅콩폴드를 자사 브랜드로 개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신원산업은 개발만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라 판단, 오직 개발에만 몰두해온 중소기업이다.

이번에 개발한 땅콩폴드는 리필용기의 불편함을 해소한 것으로 리필용기의 경우 플라스틱

용기에 옮길 경우 입구에 맞춰 따르기가 어렵고 옆으로 흘러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남은 세제보관에 불편이 많은 것과 비교해 옆으로 흐르거나 넘어져도 쏟아지지 않도록 땅콩폴드를 원터치로 접은 후 보관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땅콩폴드 삽입을 위한 별도의 후공정이 필요없이 기존의 라인에서 바로 생산이 가능해 제품 가격이 스프아웃 용기보다 저렴해 기존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식품용 스텐레스를 땅콩폴드로 사용, 세제의 물성 변화 등이 전혀 없도록 했다.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출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 동양물산에서 다양한 용량의 리필세제에 이 용기를 채택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신원산업은 식품, 세제, 농약포장지 등 그라비아 인쇄 가공을 해 내수 및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로 자기 상품 없이는 미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고 판단, 개발에 나서 땅콩폴드를 탄생시켰다.

지난 1989년 1월 신원산업이 첫발을 내딛었고 1993년 '신원산업' 상표등록, 1997년 법인 전환,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녹색 Q마크 획득

[표 1] 보유설비 현황

설비명	사양	보유대수	비고	설비명	사양	보유대수	비고
Gravure Printing	8색도	1대	칼라곤(일본산)	LLD Film	60m/m	2	전자동
Gravure Printing	8색도	1대	DT-860	Inflating M/C			
EXT-Coating	1350m/m	1대	전자동	Slitting	1500m/m	2	
EXT-Coating	1350m/m	1대	전자동	AIR CAP M/C	Free	2	전자동
DRY-Laminating	1200m/m	1대	전자동	Aging Process	C/T	3	24시간가동

특, 다음해 유망선진기술지정, 지난해 중소기업 우수업체 경영혁신 국무총리 표창, ISO 9002 인증획득을 통해 지명도를 넓혀가고 있다.

신원산업은 고객만족, 기술개발,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선도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품질방침을 세워놓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검사 및 시험완수, 공정관리 철저, 불량률 최소화라는 목표를 잡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창업 당시부터 개발에 투자를 계속하던 신원산업은 지난 6년간 4억원을 투자해 땅콩폴드를 개발 완료했으며, 그 외에도 가스 빼는 파

우치(분말용)를 비롯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데 주력하여 내년부터 시리즈로 시제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개발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대기업도 하지 못한 부분을 개발하는 것은 경영자의 의지가 강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송철중 사장은 “신개발품이더라도 생산량이 저하되지 않고 원가를 절감시키며,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제품을 만든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한다.

개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에



▲원재품 및 동판 보관 창고

[표 2] 생산능력

설비명	사양	월간생산능력	근무형태
인쇄	8색도	5,000,000m/월	3조 2교대
EXT-Coating	1350m/m 1200m/m	200Ton/월	
DRY-Laminating	1200m/m	1000,000m/월	
LLD Film Inflating	60m/m	100Ton/월	
Slitting	1500m/m	5,000,000m/월	
AirCap	Free	100만개/월	주간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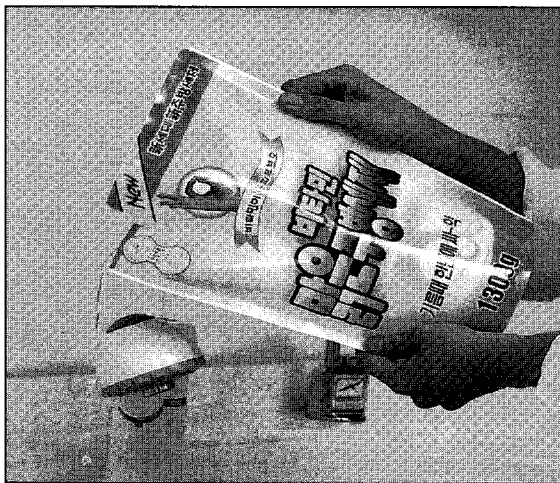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생각을 늦추지 않는다면 개발품목은 너무 많다는 것이 송 사장의 개발론이다.

또한 개발은 외국 제품을 모방하는 식의 개발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송 사장이 포장쟁이가 된 것은 70년대 말 연포장가공업체에 입사하면서 시작되었고 10여년의 직장생활을 통해 포장재는 소비성이 강하고 앞으로 분업화가 될 것이란 판단이 서

1989년 독립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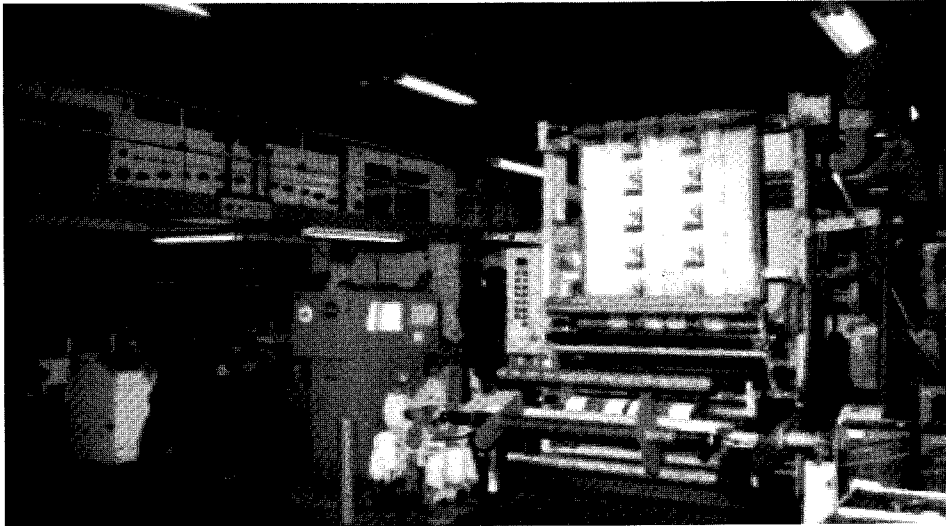
오로지 개발에만 몰두하던 송 사장은 중소기업의 고질적 어려움인 자금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의 머리 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겠다는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완제품을 개발해 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더욱 더 개발 의지를 불사르게 되었고 앞으로도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신원이 개발한 마뽕 풀드





▲신원 생산 현장 그라비아 인쇄기

신원은 창립 때부터 매년 매출의 10%를 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으로서 는 힘든 일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결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Best of Korea(50개업체)가 되었으며, 경기도 산업디자인전람회에서 특선을 차지하기도 했다.

신원은 지난해 44억원, 올해 60억원, 2002년 150억원, 2003년 300억원의 매출목표를 잡고 있다. 100% 이상의 급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난히 달성하리라 자신하고 있다.

최근 개발한 땅콩폴드가 지난 서울팩에서 호응을 받으며 대기업과의 상담이 활발해 지고 가시화되면서 목표를 높게 잡았고 시리즈로 선보일 개발품들 역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포장지도 기능이 있어야 되며 이는 소비자가 편리해야 된다는 송 사장은 “친환경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

다”고 다시 강조했다.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송 사장은 “정직 속에는 철학과, 아이디어 제품, 품질 모든 것이 들어 있다”며 모든 것은 정직에서 시작된다는 그만의 철학을 피력했다.

이중합지된 폴리프로필렌 원단으로 제조되는 포장용기와 그 제조방법, 포장대용원지 및 그 제조방법, 용기 재활용 용품의 보충액 포장용기, 쓰레기 위생봉투, 리필용 백, 가스를 배출시키는 포장용기, 리필제품용 파우치 등이 송 사장이 개발하여 특허낸 제품들이다. 그는 이 제품들을 독점할 생각도 없다.

국내 업체의 기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술이전도 해준다는 생각이다.

성실과 사랑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올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송 사장의 꿈이라 한다.

평범하지만 하기 힘든 그의 꿈이 이루어져 포장업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ko]